

아버지 되어가기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A Phenomenological Study on Becoming a Father: Experience in Parenting Young Children

이은수¹

Eun-su Lee¹

ABSTRACT

Objective: In this study, the author aimed to explore the meaning of fathers' parenting experience by interviewing and analyzing their experience qualitatively.

Methods: Ten fathers who had infants or young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of the fathers and wer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Colaizzi's phenomenology analysis procedure.

Results: As a result of analysis, the parenting experience of the fathers could be summarized into 42 themes and the themes were categorized into 7 clusters. The clusters could be categorized again into two categories; 'the rebirth of the daddy' and 'the reality of the daddy'. And each of the 4 and 3 clusters were included into each category.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e real features of fathers who had infants or young children, and are expected to be used as supporting materials or intervention for fathers who are trying to become good fathers.

key words fathers, parenting young children, infant care, parent education

*이 논문은 2018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8S1A5B5A07073853)

¹ 제1저자(교신저자)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e-mail : maum@sm.ac.kr)

I. 서론

양육에서 아버지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어머니와 구별되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기(Lamb, 2010)되면서 아버지의 고유한 특성을 부모 역할과 자녀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여성 경제활동인구 및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부터는 반 이상의 여성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9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1%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가족 형태 변화와 양성 평등의 확산으로 인한 담론은 가정 내에서 이분화된 역할 구분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녀 양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자녀를 돌보는 일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로 발생하는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가 더해지며 아버

지가 수행하는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나성은, 2014). 이에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는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며 아버지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은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아버지는 돌봄 형태 위주로 양육하는 어머니와는 달리 주로 놀이를 통해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아버지의 놀이성은 자녀의 정서조절과 사회적 능력을 부분적으로 조절하고(여운재, 황혜신, 2019)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서석원, 이대균, 2014). 아버지가 자녀에게 애정 표현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은 영유아가 타인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며(장영애, 이영자, 2008), 아버지가 자녀와의 놀이에 참여하는 것은 유아의 행동 자기조절능력과 관계가 있고(류희정, 이진희, 2013), 아버지의 놀이 참여 정도는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박하얀, 배선영, 2018). 이처럼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자녀 발달(류희정, 이진희, 2013)과 부부관계의 만족감(김혜라, 2013)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보고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와 긍정적인 양육이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고, 아버지 또한 가족 관계 내에서 친밀감을 경험하며 삶의 질이 향상됨을 보인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 유교적 아버지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고정적이지 않다. 농업 기반 사회에서 유교적 아버지는 경제적 부양자라기보다는 가족의 정신적인 중심이 되는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직접 양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녀 양육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임인숙, 2006).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일터와 가정이 분리됨에 따라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 부양을 책임지고 어머니는 자녀 양육과 가사를 포함한 가족의 모든 유대를 관장하는 것으로 부모 역할이 이분화되었다(재인용, 함인희, 1997). 영유아기 아버지들은 다정다감한 아버지, 안내자로서의 아버지, 본보기가 되는 아버지, 민주주의 아버지, 경제적으로 유능한 아버지를 아버지상으로 추구(조형숙, 김지혜, 김태인, 2008)하면서도, 자녀 교육에 관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엄격한 아버지상을 유지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환, 이선이, 2014). 현대의 아버지는 부모로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나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수동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권혜진, 2013). 아버지들은 육아 참여에 공감하고 새로운 아버지상 구현을 시도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육아 참여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아버지를 위한 육아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연구 결과(박철순, 고은미, 2018)가 발표된 바 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기대와 역할이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여 아버지를 지원하는 방법과 내용 또한 달라져야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은 이전 세대에서 통용되던 남성과 여성의 역할 변화를 사회와 가정에서 동시에 경험하면서 양성 평등과 양육 참여라는 가치를 수행하는 첫 세대 아버지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이 경험하는 바는 과거 아버지가 경험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아버지상을 경험하였고 그와 같은 가치가 유지되는 환경에 살면서도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제에 당면해있다. 이러한 아버지 고유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아버지 뿐 아니라 자녀와 가정을 지원하는데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영유아기는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고 부모-자녀 관계 경험을 통해 심리사회적 발달이 이루

어지는 결정적 시기으로써 애착 대상과 상호작용을 되풀이하면서 내면화한 내적 작동 모델을 발달시키고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일반화된 표상을 만들게 된다(Bowlby, 1979; Bahn, 2013). 영유아기는 자녀 발달에 있어 결정적 시기일 뿐 아니라, 영유아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이 가진 부모 역할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부모 역할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과 자녀에 대해 숙고하고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게 된다(신효미, 유미숙,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되는 출발이자 자녀 성장에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영유아기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영유아기 자녀 양육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건강한 자녀 발달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아버지의 양육 및 부모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실제적인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와 연구윤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인간 대상 연구윤리에 따라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연구 승인 후 참여자 선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 목적에 따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아버지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승인된 절차에 따라 인터넷 육아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만 1-5세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에 대한 연구 참여 모집 공고를 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연구설명서를 발송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최종적으로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10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32-42세이며 결혼 기간은 3-10년으로 전일제 근무 직장인이다. 참여자들의 자녀 성별은 남아 6명·여아 7명이며, 첫째 자녀 연령은 1세 1개월-6세 5개월이고 둘째 자녀 연령은 2개월~4세 5개월까지이다.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령	결혼기간	학력	배우자 근로	자녀 1	자녀 2
참여자 A	40세	8년	석사 졸업	전일 직장인	6세 0개월	남 3세 2개월 여
참여자 B	39세	10년	학사 졸업	전일 직장인	5세 1개월	여 ·
참여자 C	32세	3년	학사 졸업	전업주부	1년 2개월	여 ·
참여자 D	34세	3년	석사 졸업	대학원생	1년 10개월	남 ·
참여자 E	42세	6년	석사 졸업	전일 직장인	2년 8개월	남 ·
참여자 F	39세	8년	학사 졸업	전일 직장인	6세 5개월	남 4세 5개월 여
참여자 G	34세	5년	학사 졸업	전일 직장인	4세 5개월	남 임신 9개월
참여자 H	37세	4년	학사 졸업	전일 직장인	2세 1개월	여 ·
참여자 I	36세	4년	석사 졸업	전업주부	2세 5개월	여 0세 2개월 여
참여자 J	42세	6년	박사 졸업	시간제 직장인	2세 8개월	남 ·

2. 자료수집

연구참여자 10인을 대상으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각 90분 내외의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영유아 아버지의 양육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공통 질문(‘자녀를 둔 아버지로서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세요. 평일과 주말의 하루 일과를 알려주세요. 자녀가 태어난 후 달라진 면을 이야기해주세요. 당신은 주·공통·보조 양육자인지 이야기해주세요.’ 등)과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구체적인 질문을 추가하는 반구조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승인된 절차에 따라 면담 내용은 녹음되었고 이를 전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사된 자료에서 모호하거나 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부분은 참여자와 추가 면담을 실시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3. 자료분석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한다(Creswell, 2010). 우리가 일상의 생활 세계에서 경험하는 체험 현상을 그 현상 본성에 충실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기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Colaizzi, 1978). Colaizzi의 현상학적 기술 방법은 우리가 생활세계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체험을 드러나는 그대로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이남인, 2014).

본 연구는 개별 아버지가 체험을 바탕으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경험을 광범위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적합한 Colaizzi 방법을 택하여 분석하였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면담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진술을 의미 단위로 정리하였다. 구성된 의미 단위를 묶어 주제(themes)로 제시하고 반복되는 공통 주제를 주제 묶음(theme clusters)으로 범주화하였다. 주제묶음은 다시 범주(categories)로 취합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 자료 전체를 검토한 후 녹취록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벅차오르는 느낌, 단순히 그냥 딱 기쁨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게 맞는거 같아요.’라는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하고, 이를 ‘벅찬 기쁨’으로 의미 형성한 후, 이와 같은 단계를 반복한 유사한 의미를 묶어 가장 공통이 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주제로 정리하였다. 이는 다시 ‘신비롭고 예쁜 내 아이’, ‘나를 똑 닮은 너’ 등의 다른 주제들과 함께 ‘내 아이의 아빠가 됨’이라는 상위 개념의 주제묶음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료를 기술하고 결과를 작성한다. 이를 위해 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주제, 주제 묶음, 범주를 구성하였다. 범주화한 내용을 다시 면담 자료와 비교하며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자의 분석 자료는 아동복지학으로 박사 학위를 수여한 아동상담전문가 1인이 자료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연구자와 검토자는 반복 논의를 거쳐 합의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다시 연구참여자 2인에게 검토 요청하여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개별 심층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험은 아버지 되어가기와 아버지 역할 수행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되어가기를 중심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2개의 범주(categories)와 7개의 주제 묶음(theme clusters), 그리고 41개의 주제(themes)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험 분석 결과

범주	주제 묶음	주제
아버지 되어가 기	아이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 감 : “무조건 아이 위주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부담 • 퇴근이 없는 생활 • 개인 시간을 갖기 어려움 • 부모가 아닌 부부의 시간은 애써 만들어야 함 • 아쉬워할 틈도 없이 벅찬 육아 • 아쉽고 바쁜 생활에도 익숙해짐
	아빠의 탄생 내 아이의 아빠가 됨 : “내가 너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와는 다른 아빠의 시작 • 나를 똑 닮은 너 • 설명할 수 없는 감정 • 신비롭고 예쁜 내 아이 • 딱 나를 알아보고 나를 찾는 내 아이 • 나를 찾는 아이를 보며 모든 근심이 사라짐
	부쩍 떠오르는 어릴 적 나의 아빠 : “나의 아빠를 딛고 나는 아빠가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아빠에 대한 피드백으로 형성해가는 아빠상 • 엄격했던 나의 아빠와는 다른 아빠이고 싶음 •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던 나의 아빠 • 부모 이전에 가장이었던 나의 아빠 • 아빠가 내 인생에 남긴 좋은 것들 • 나의 아빠도 어쩔 수 없었음을 이해하게 됨
	과거를 딛고 내 아이에게 남길 미래를 향함 : “내 아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가 되어 더 넓어진 세상 • 한 인간으로서 좋은 사람인 아빠가 되고싶음 •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아빠가 되려함 •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서 좋은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싶음 • 자녀를 위해 경제력을 갖춘 아빠가 되고 싶음
아빠의 현실	아빠가 아닌 부모로서 내 자리 찾기 : “주제 파악이 필요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넘을 수 없는 엄마의 벽 • 주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아내에게 의존하는 것이 편하기도 아쉽기도 함 • 신생아기 신체 돌봄에서 아빠 역할은 더욱 적음 • 마음은 언제나 주 양육자이고 공동 양육자임 • 자녀에 대하여 엄마보다 더 잘 알기는 어려움 • 결국 자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엄마가 함
	실현하고 싶은 일 - 가정 양립 : “끼어있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휴직은 먼 나라 이야기 • 직장 생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음 •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지만 아직 어려움이 많음 • 저녁이 있는 삶을 주장하기 어려움 • 외롭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음
	스스로 찾아가는 아빠의 길 : “좋은 아빠가 어떤 아빠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와 요구가 변했으나 경험한 바 없음 • 이상적인 아빠 역할 모델을 본 적 없음 • 나부터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함 •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일도 가정도 어려운 시절임 • 생존이 기적인 세대

1. 아빠¹⁾의 탄생

1) 아이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 감: “무조건 아이 위주죠.”

참여자들은 아내의 임신 소식이 기쁘면서도 마냥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다고 회고한다. 남편이라는 역할에 아버지라는 무게가 더해져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자녀의 출생을 기다렸다. 자녀가 태어나고 참여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부부 둘만의 여유로운 시간은 아이의 일과에 따라 움직였고, 예쁘게 꾸며던 신혼 공간은 아이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계속 변모하였다. 부부로 함께하던 남과 여는 아빠와 엄마가 된 서로의 관계에도 적응해야만 했다. 부모가 된 부부는 우리 아이라는 공동 관심사가 생겼으나 남편과 아내로서의 개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느꼈다. 아이의 출산 후에는 함께 영화관을 가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기도 어려웠다. 아이를 일찍 재우고 조용한 부부만의 시간을 만끽하거나 개인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도 했으나 자녀를 먹이고 재우고 어린이집 등·하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과였다. 개인 생활이 사라진 듯한 일상이 아쉽기도 하지만 실상은 아쉬워할 틈조차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그 생활에 이내 익숙해지고 있었다.

<가정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부담> 아이가 태어나니까 물론 기분이 좋기는 한데 - 중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책임감, 그런 부분이 같이 느껴지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우선 가장으로서 뭐 이제 좀 더 돈을 열심히 잘 벌어야겠다, 그 다음에 애를 어떤 식으로 이제 가르쳐야할까 이런 고민도 생기고요. -참여자 F-

<아쉬워할 틈도 없이 벽찬 육아> 좋게 얘기하면 공동관심사가 커진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대신 각자 개인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진거고.. (근데) 서운할 틈이 별로 없는 게 같이 있을 땐 어떻게 애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따라가기도 상당히 벽차서... 아이가 생기면 그건 어떻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에 맞춰서 다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출근 시간을 (다르게) 나눈 것도 애한테 좀 맞추다 보니까 그런거거든요. -참여자 H-

<개인 시간을 갖기 어려움> 생활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죠. 삶이 좀 없어지긴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도 없고, 저도 이것저것 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내 시간이 있는 것이 뭐 좋고 즐기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애기가 생긴 다음부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죠. -참여자 C-

2) 내 아이의 아빠가 됨: “내가 너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작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임신과 출산 과정 내내 신체의 변화와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어머니가 되어감을 경험하는 여성과 다르게 남성은

1) 연구참여자인 아버지들은 자신을 ‘아빠’라 칭하였다. 내부자의 언어(emic)를 그대로 사용하여, ‘아빠, 엄마’ 및 ‘아버지, 어머니’를 혼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어머니가 되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며 자녀를 기다린다. 참여자들은 임신한 아내와 함께 출산을 준비하였으나 실제로 아버지가 되었음을 체감하는 순간은 자녀의 출생 후라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를 직접 보고 작고 여린 존재를 품에 안고 책임을 다해 길러낼 것을 다시금 다짐하였으며 말 그대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작은 존재가 자신과 닮은 면을 점차 발견하면서 비로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임을 실감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참여자인 아버지를 인식하고 찾게 되면서부터 이들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어 비로소 의미 지어지는 존재처럼, ‘아빠’라는 내 아이의 부름 앞에 참여자들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되어감을 자각하고 그 책임을 기꺼이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서는 고된 날에도 참여자를 향해 아이가 달려오는 그 순간에는 오직 자녀와의 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비록 또다시 힘겨울지언정 양육의 고된 뿐 아니라 삶의 고된까지도 그 순간에는 모두 사라진다고 고백하였다. 그 순간의 기쁨과 에너지로 참여자들은 또 값진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설명이 안되는 감정이 와서, (내가) 감정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차오르는 느낌, 단순히 그냥 딱 기쁨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게 맞는 거 같아요. -참여자 H-

<딱 나를 알아보고 나를 찾는 내 아이> 현실적으로 이제 주말 부부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 이 녀석이 엄마한테는 안 가고 토요일 일요일 내내 나랑 ‘아빠! 아빠! 아빠!’하고 다니는데. 이 녀석이 막 (내게)와 가지고 먼저 와서 살 부대끼고 뽀뽀해주고 이 녀석이 먼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녀석이 정말 내 피붙이구나’ 생각하죠. -참여자 E-

<나를 찾는 아이를 보며 모든 근심이 사라짐> 아침에 갈 때 안아 주고, 뽀뽀하고, 이렇게 파이팅하고, 그러면 하루가 완전 에너지 만땅이죠. 충전 만땅. 저녁에 에너지 방전 되어서 오면 ‘아빠!’ 하고 강아지 꼬리치고 오듯이 와서 안기고 그러면 ‘아, 이것이 사는 이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한이 없어요.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저는 아이가 잘 커준다고 하면, 저는 아쉬울 것이 없어요. 제 삶이. -참여자 J-

3) 부쩍 떠오르는 어릴 적 나의 아빠: “나의 아빠를 딛고 나는 아빠가 된다.”

모든 사람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특별하다. 부모의 삶과 부모로서의 역할과 태도는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 좋다고 인식하는 부모의 특성을 닮으려 노력하기도 하고, 나쁘다고 인식하는 특성에 대해서는 닮지 않으려 노력하는 등 영향을 받는다. 참여자들은 부모가 되면서 자신의 부모와 아버지를 부쩍 떠올리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자신이 되고 싶은 아버지상을 형성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아버지는 가정 경제에 책임을 지는 가장으로 참여자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바쁘고 피곤하여서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다. 또한 일부 참여자는 아버지가 엄하여 서로 대화가 적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바가 많았고 아버지가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한 참여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기만을 바라며 눈물 흘리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자신이 좋아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유지하고 못내 아쉬웠던 모습은 자녀에게 전하지 않

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되고 싶은 바람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아버지가 되면서 무뚝뚝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다보니 그러했던 아버지의 모습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닮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은 더 이상 원망으로 남아있지 않으나 참여자가 되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은 그들의 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라져 있었다.

<나의 아빠에 대한 피드백으로 형성해가는 아빠상> 내가 어떤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어떤 아빠를 뒀지? 그리고 어떤 엄마나 어떤 부모를 뒀기 때문에 나의 장점과 단점이 생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예컨대 저는 제 부모님한테 되게 좋았던 것은 책을 되게 많이 사줬어요. 책을 정말 끝도 없이 사 주었어요. -참여자 D-

<엄격했던 나의 아빠와는 다른 아빠이고 싶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저의 부모님과 그렇게 지내지 못했는데, 엄격하신 분이래...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좀 더 친구처럼 많은 이야기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참여자 I-

<부모 이전에 가장이었던 나의 아빠> 우리 아빠도 나랑 놀아준 적이 없어요, 어려서. 주말에는 잠만 자고 있고 가끔 용돈 주면 좋아하고 이것 말고는 (기억이) 없어요. -중략- 부모 세대에서도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뿐이지 마음은 지금 우리와 똑같았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팔순이신데 요즘에는 막 카톡도 보내고 집에서 설거지도 해요. -참여자 B-

4) 과거를 던지고 내 아이에게 남길 미래를 함양: “내 아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버지가 되면서 참여자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졌으며 자녀를 길러낸 부모들의 노고와 수고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가는 자신을 느끼며 참여자들은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가 될지 고민하였다. 참여자들이 자신이 되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을 명료하게 그려내는 것은 어려웠다. 각자 꼭 지키고 싶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아버지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자신이 현재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현재 자녀에게 더 공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였다. 참여자 모두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좋은 사람으로 자녀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었다. 그들은 자신이 느꼈던 결핍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며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던 가치는 주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끝없는 경쟁과 낙오의 압박 속에서 살아온 참여자들은 자신이 받았던 비교와 중압감을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았으나 경제적인 여유를 포함한 좋은 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하고 싶었다. 학부모 이전에 좋은 부모, 좋은 부모 이전에 좋은 사람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장담할 수는 없었다. 이는 현재 참여자들의 자녀가 모두 영유아기므로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고 참여자들이 학부모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 인간으로서 좋은 사람인 아빠가 되고 싶음>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는 약간 상식인 것 같아요. 저희 세대(부모)는. 애들끼리 비교하는 그런 거는 좀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정도만 있어요. -중략- 저는

되게 호인(好人)처럼 기억되고 싶죠, 호인. -중략- 제가 학부형이 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 뭐 이런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안될지언정... 안될 가능성도 높죠. 아마 안될 것예요. 그래도... -참여자 D-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아빠가 되려함> 그래도 대체로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안아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가족보다 그런 걸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가족 문화가 막 친근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보니 잘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가 아빠가 되어서 아이를 바라보다 보니 그런 거를 잘 쌓아가면서 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여자 G-

<자녀를 위해 경제력을 갖춘 아빠가 되고 싶음> 뭔가 돈 때문에 못 해 주기는 싫은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는 별자, 사회적 요건들을 맞춰주자, 그래요. -중략- 요즘 우리말 꿈이 뭔지 알아요? 아파트 1층에서 살고 싶대요. 맘껏 뛰어도 되니깐. 그게 얼마나 슬픈데요. (그래서) 알아보고 있어요. -참여자 B-

2. 아빠의 현실

1) 아빠가 아닌 부모로서 내 자리 찾기: “주제 파악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된 참여자들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부모 역할을 배우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엄마가 없어도 아이와 잘 지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모든 환경이 아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상기했다. 공동 양육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면서도 때로는 보조 양육자에 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 양육자는 엄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나도’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주말에는 육아를 전담하고 있고, 식사 준비와 설거지도 다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어머니인 아내보다 더 양육에 매진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였다. 조금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호소도 있었다. 아내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자녀와 아내의 관계는 처음부터 돈독한 것처럼 느껴지고 후발 주자가 된 듯한 따라잡을 수 없는 관계의 차이가 느껴진다고 하였다. 자녀가 참여자들과 잘 지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를 찾으면 서운하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아내를 주양육자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아무리 참여자들이 노력하여도 자녀의 어머니인 아내가 하고 있는 노력과 희생이 더 크다고 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그에 대해 아쉬우면서도 때로는 편하기도 하다는 말을 하며 무거운 책임은 아내에게 넘기고 있다는 솔직한 고백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해 어머니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자녀에 관한 최종 결정 또한 아내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그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아내의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해서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넘을 수 없는 엄마의 벽> 기본적으로 엄마들은 자기에게 젖을 주었던 사람이고 그거는 아빠들이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서 상당 부분을 가장 밀접하게 접한 거기에 대한 그 끈끈함 같은 거에 대해서 아빠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참여자 H-

<주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저는 보조양육자라는 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컨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고 했을 때 와이프가 모든 것을 해 놓은 상황인거예요, 모든 것을 없으면 물론 저도 하죠. 밥을 먹여요. (아이 밥을) 먹이는데 아내가 해 놓은 어떠한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라고 하면은 막막한 거예요. 공동양육자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 할 수 있으면 돼요. 혼자서. -중략- 그런데 아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참여자 D-

<아내에게 의존하는 것이 편하기도 아쉽기도 함>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육아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잘되고, 단순히 남자들은 여자들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참여자 F-

2) 실현하고픈 일-가정 양립: “끼어있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참여자들은 각자의 직장 분위기에 따라서 체감하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구성원간의 상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큰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를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었으나 이들이 속한 직장의 시스템은 아직 그렇지 않았다. 혹 시스템이 갖춰진 직장이라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원까지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기의 응급 상황으로 급히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에서 “어서 다녀와.” 보다는 “아기 엄마는 어디 있는데?”라는 질문이 먼저 나온다는 한 참여자의 토로는 아버지도 육아의 주체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천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이직을 고려하거나 실제 이직을 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의 배우자는 전업주부가 되거나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근무를 택하기도 하였고, 그대로 두 사람 모두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였다. 참여자들은 IMF 이전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렸던 경험을 뒤로하고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 되었다. 이미 자리잡은 선배 세대는 당연히 가부장적인데 반해 이제 사회에 들어오는 후배들은 자신보다 더 개인적이다. 참여자들은 비슷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보다 자주 속하는 그룹에 따라서 더 기성세대로 보이기도 신세대로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일-가정을 양립하면서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또한 어쩔 수 없다고 토로하였다.

<육아 휴직은 먼 나라 이야기> ‘아빠도 육아를 하는 겁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야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제대로 뭐 아빠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언젠가는 남성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를 모두 포함하는 거라고 그럴 때가 와야 하겠죠. -참여자 G-

<저녁이 있는 삶을 주장하기 어려움> 우리나라의 그 기업 문화라는 게 어차피 40대가 회사를 다니는데 있어서 프리랜서나 아니면 자기 브랜드를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야근을 하거나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한들 40대가 서울에서 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살 때,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

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아니라) 프리랜서라도 마찬가지예요.
-참여자 E-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지만 아직 어려움이 많음>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랑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중략- 지금이 그런 과도기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주위들은 바로는 아직은 그래도 남편이 육아를 하기에는 환경이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제가 (직장) 상사라고 해도 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좀 더 일에 집중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아빠가 육아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직장 일을 우선) 하기를 원하는... -참여자 I-

3) 스스로 찾아가는 아빠의 길: "좋은 아빠가 어떤 아빠인가요?"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인가에 대한 참여자의 질문에 침묵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데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해졌다. 참여자들은 좋은 어머니의 그림은 그려지면서도 내가 되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은 조각조각일 뿐 완성된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들이 어린 시절 본 아버지는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오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육아와 살림을 전담하던 모습을 뒤로하고 자신이 수행해야 할 아버지 역할을 새롭게 인지하고 실행하는 것에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상대적으로 양육에 적극적인 괜찮은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다가도 육아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 좋은 아빠도 좋은 남편도 아닌 것만 같은 회의를 느낀다고 하였다. 자녀에게 좋은 아빠라는 아내의 인정과 격려에 비로소 안도하다가도 아버지라는 지도에 없는 길을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렵기만 하다고 하였다. 대부분 참여자들은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참고할 역할 모델을 찾기 어려워서 더욱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스스로 자신만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적인 아빠 역할 모델을 본 적 없음>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게 내가 좀 (부족한) 문제라 문제일수도 있겠는데.. 좋은 엄마는 어느 정도인지 그러지는데,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참여자 H-

<나부터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함> 롤 모델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만들어야지요. 첫 번째 세대로써. 어렵죠. 쉽다고 할 수는 없는데. 조금 더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빠는 뭐 같이 하고 싶고..’(서로 이야기 하면서), 우선은 재들도 크면 저를 보면서 아빠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겠지요). -참여자 F-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음> 아빠도, 엄마의 눈에는 성에 안 차고, ‘대체 왜 그럴까?’ 싶겠지만, 아빠도 나름대로 정말 용을 쓰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J-

3. 영유아 아버지 양육 경험의 의미

분석 결과를 통한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어가는 경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르게 자녀의 출생 이후 애착을 형성하기 시작

한다. 어머니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신체를 통하여 자녀를 경험하는 바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반면 아버지는 자녀의 출생 이후 애착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태아애착 관련 선행연구는 임신 경험이 가족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출산에 따른 역할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태아애착을 가족 전체의 사건으로 간주하는 한편, 임신부와 배우자 간의 태아애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정미라, 강수경, 이혜진, 2012) 이는 참여자 아버지들의 경험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와 애착을 형성하는 것과 다른 양상으로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애착이 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애착은 자녀가 아버지인 참여자를 인지하고 참여자를 필요로 하는 반응이 많아 질수록 그에 따라 애정과 유대감도 증진된다. 따라서 아버지들은 임신보다는 출산 후, 출산 직후보다는 자녀가 자라면서 자녀와 더 높은 수준의 유대와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 직후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가 맺는 애착의 양상을 먼저 목격할 참여자들은 그와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자녀와 형성하는 애착에 대하여 어머니의 애착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신생아일 때 어머니의 신체적 돌봄이 중요하고 강조되는 반면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수행하는 부모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자녀에게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는 또 다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버지들은 주 양육자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동 양육을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주도는 어머니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때때로 경험하는 서운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근거이기도 했으며, 어머니가 자녀에게 차지하는 비중 만큼 자신은 다른 분야에서 가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아버지들은 공동 양육임에도 어머니를 자녀 양육에 관한 최종 권한을 지닌 주양육자로 인정하는 한편, 맞벌이라 하더라도 가정의 경제 활동에 대한 최종 책임과 권한은 아버지인 참여자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역할 구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참여자들이 배우자인 여성이 양육을 통하여 가정에 기여하는 바와 같은 비중으로 균형있게 가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보상 심리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영유아를 자녀를 둔 아버지는 원가족 경험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자신이 되고 싶은 아버지상을 형성한다. 참여자들은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원가족 아버지가 수행한 부모 역할과 자신이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를 회상하였다. 참여자는 자신이 경험한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반영하며 아버지상을 구축해갔다. 원가족에서 경험한 아버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결여시킨다는 선행연구(김영희, 채영문, 신희정, 2007)와 같은 맥락에서 참여자들은 이상적인 아버지 역할 모델을 경험한 바가 없다는 데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역할 모델 부재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원가족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는 참여자들이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회 분위기와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닮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여자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시대와 사회가 달라진 환경에서 참여자가 경험한 아버지 역할을 답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수정된 아버지상을 하나씩 만들어갔다. 이 과정은 이상적이지 않았던 원가족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유년기에 아버지로부터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남성이라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를 적극적으로 양육하면서 자녀 양육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완화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결과(최은영 등, 2017)와 같은 맥락에서 원가족의 부정적인 경험이 전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치와 신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중매체에서는 자녀를 돌보면서 일상을 공유하는 아버지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며, 프렌디(friendly), 스칸디대디(scandi-daddy)와 같이 자녀 양육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아버지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나성은, 2014), 이는 자상하고 친근하게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반영하는 반면, 이에 대한 현실적 실현이 어려운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버지상을 수립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아버지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개인의 신념과 역량으로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개입을 통하여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영유아 아버지들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갈등을 겪는다.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라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하게 된 여성에서 놓여있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심이, 직장일 중심에서 가정일을 병행하게 된 남성인 아버지에게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일-가정 양립이 보편적 가치로 동의되는 사회 분위기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이와는 차이가 있었다.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향상과는 별개로 실제 그 역할 수행에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바(박철순, 고은미, 2018)와 같이, 참여자들은 대체로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만큼 공동 양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참여자 직장 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직장 생활은 참여자 및 참여자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참여자들은 일과 가정 모두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와 같은 어려움으로도 드러나는데, 바람직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이 많은 업무량과 회식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나타났던 선행 연구(김낙홍, 2011)와도 일치하는 바가 있다.

참여자들은 부모 세대인 베이비부머(babyboomers)의 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에코부머(echoboomers)인 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대학교 이상에 진학하는 비율이 6배 높고 조기 어학연수 및 해외 유학 등 풍부한 교육 혜택 속에서 글로벌 마인드를 지니고 있으며 부모 세대 성장기에는 생각지도 못하였던 질 높은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면서도 어려운 경제난 시대에 고통스러운 사회 진입기(박덕배, 2012)를 가까스로 통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다.

베이비 붐 시대 지나서 산아 제한이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낳아서 잘 기르자. 사실 지금의 엄마 아빠 세대가 그 세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 세대들은 가족 커뮤니티라는 것이 잘 형성되어서, 대가족제

도에서 살았던 분들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핵가족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의 3·40대 아빠들이예요. (우리도 가정에서) 너무 귀하게 컸거든요, 방목해서 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회생활도 그래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IMF 시대가 오고, 그런 회복기에 있는 그런 세대다 보니까 그것도 어렵고, 막 여러 가지로 보통 낡은 세대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생활을 꾸려 가는데 있어서 이것이 안팎으로.. -중략-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해요. -참여자 J-

이들의 배우자 또한 아들·딸 구별 없이 교육받은 세대로써 부부가 핵가족 제도 내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며 자기 발전과 자녀 양육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합리적 사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경험하는 제도와 분위기는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일-가정 양립은 공허하게 외치는 슬로건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부와 모, 자녀 모두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유지되는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이에 일-가정 양립의 가치에 대한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현 시점에서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이 더욱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IV. 논의 및 결론

아버지 되어가기는 아버지라는 도구적 역할 이전에 아버지가 되어가는(becoming) 과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존재로서 아버지가 처한 사회적 개인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 되어가기의 맥락을 고려하여 아버지 양육을 지원하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에는 적절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아버지에 대한 담론은 개인의 과업에 갈등과 피로를 야기하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자녀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아버지 개인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전문적 개입은 중요하다. 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부모 역할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과 아버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아버지와 자녀·배우자의 특성과 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설계로 구성해야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통되는 내용으로 자녀 발달에 따른 부모 역할과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면서도 어머니 중심 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아버지와 자녀의 애착 형성 특성과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및 아버지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주제로 구성한다면 아버지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아버지 10인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이들의 경험을 광범위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면담 시 연구참여자들은 평소 자녀 육아에 대한 관심과 자녀를 보다 잘 양육하고 싶은 바람이 관심이 있었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동기를 밝혔다. 자발적인 연구 참여 모집으로는 자녀 육아에 관심이 낮은 아버지군을 모집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다양한 생활 세계와 사회적 환경이라는 맥락을 고려하여 아버지 경험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버지를 대상으로 개인의 체험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그 밖에도 아버지가 되어가는 경험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험에 대한 연구 또한 제안하는 바이다. 한편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의 어려움과 갈등을 반영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상기 후속연구 진행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및 교육, 상담 현장의 교사와 임상가가 아버지를 지원하고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아버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보다 행복한 아버지의 삶을 지원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혜진 (2013). 아버지교육 참여자 경험을 통해 살펴본 아버지 교육의 의미.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461-488.
- 김낙홍 (2011).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과 역할수행의 어려움,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고찰.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2), 79-98.
- 김영희, 채영문, 신희정 (2007). 원가족의 정서분위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자신감이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2), 67-87.
- 김정환, 이선이 (2014). 한국 30대 고학력 남성들의 아버지상과 아버지 역할 실천방식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6**(3), 71-104. doi:10.21478/family.26.3.201409.003
- 김혜라 (2013). 아버지의 어린이집 등·하원 참여 및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참여와 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 : 직장어린이집과 비직장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65-66.
- 나성은 (2014). 남성의 양육 참여와 평등한 부모 역할의 의미 구성: 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4**(2), 71-112.
- 류희정, 이진희 (2013). 유아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8**(2), 47-64. doi:10.16978/ecec.2013.8.2.003
- 박철순, 고은미 (2018). 아빠 육아 참여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육아지원연구**, **13**(1), 197-220. doi:10.16978/ecec.2018.13.1.008
- 박하얀, 배선영 (2018).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6), 123-141. doi:10.14698/jkcc.2018.14.06.123
- 서석원, 이대균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157-178.
- 신효미, 유미숙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기성찰이 자녀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

- 역할만족감과 긍정적 양육태도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8**(2), 115-132.
doi:10.17641/KAPT.18.2.3
- 여윤재, 황혜신 (2019).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수준이 자녀의 사회적능력과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1), 107-125. doi:10.14698/jkce.2019.15.01.107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서울: 한길사.
- 임인숙 (2006). 한국 언론의 부권상실론의 변화와 정치성. **가족과 문화**, **18**(4), 65-92.
- 장영애, 이영자 (2008).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87-206.
- 정미라, 강수경, 이해진 (2012). 임신기 부부의 부부관계 질과 태아애착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50**(4), 51-61. doi:10.6115/khea.2012.50.4.051
- 조형숙, 김지혜, 김태인 (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아버지상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1), 239-264.
- 최은영, 최소연, 김유정, 안선희 (2017).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 **아동과 권리**, **21**, 331-352.
- 함인희 (1997). 현대사회 아버지상의 재발견. **가족과 문화**, **2**, 1-24.
- Bahn, G. H. (2013). From attachment theory to mentalization: Historical background and clinical implications. *Korean Association of Psychoanalysis*, *24*(1), 9-20.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sees it. In R. S. Valley & M. King (Ed.),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2010).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옮김). 서울: 학지사(원판 2007).
- Lamb, M. E. (2010). How do fathers influence children's development? Let me count the way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1-26). Hoboken, NJ: Wiley.
- 통계청 (2020. 1). **성별경제활동인구총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conn_path=I2에서 2020년 1월 20일 인출
- 디지털타임스 (2012. 9). **베이비부머-에코부머세대의 고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90602012351697002에서 2020년 2월 14일 인출

논문투고: 20.01.31
수정원고접수: 20.02.22
최종게재결정: 20.03.24